

전남 어류양식 조기 출하에 생산량 2만7696t 역대 최고

지난해 생산액 3211억원 전년비 410억 증가... 전국 34.8% 차지 가자미류·돌돔 양식↑ 농어·조피블락↓ ...사육 면적 3.6% 증가 양식업체 10년 새 43.4% 감소... 종사자는 33% 감소한 1678명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류 조기 출하가 늘면서 전남 어류 양식 생산량과 생산 금액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어류양식 생산량은 2만7696t으로 1년 전보다 4%(1053t) 증가했다. 전남 생산량은 2018년(2만2583t) 이후 2019년(2만6643t), 지난해에 걸쳐 2년째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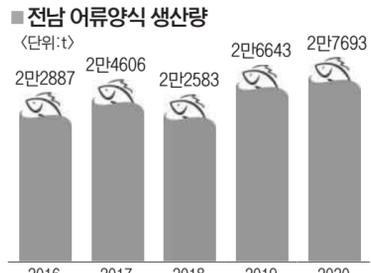
지난해 생산량은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0년(2만6022t)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류 양식업체들이 경영자금을 확보하고 어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중·대형 어종을 조기 출하하면서 생산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어류양식 생산량 증가에 생산금액도 늘었다. 전남 어류양식 생산액은 32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410억원) 증가했다. 어류양식 생산액도 지난해 전남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전남 생산금액은 전국 9237억원 가운데 3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제주(2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경남(2258억원), 경북(439억원), 충남(2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어종별 생산금액을 비교하면 넙치류는 제주(2739억원)가 50.8%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에 이어지는 전남(2356억원), 경남(148억원), 경북(106억원) 순이었다. 조피블락은 경남(852억원), 전남(593억원), 충남(242억원) 순으로 많았다. 송어류 생산금액 상위 지역은 경남(454억원), 전남(55억원), 기타-전북(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어류양식업체는 가자미류와 돌돔 사육을 부쩍 늘리고, 농어와 조피블락은 줄였다.

전남 어류양식 사육 수 면적은 총 136만8138㎡로, 전년보다 3.6%(4만7784㎡) 증가했다.

어종별로 보면 가자미류(652.7%)와 돌돔(336.4%) 면적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만8350㎡ 규모 돌돔과 5532㎡ 규모 가자미류 양식을 벌였다.

사육 수 면적 증가율은 가자미와 돌돔에 이어 기타돌류(153.1%), 고등어류(81.3%), 능성어

(79.2%), 송어류(62.7%), 참조기(33.6%), 감성돔(28.3%), 참돔(24.2%), 쥐치류(6.4%), 기타블락류(2.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농어양식규모는 전년보다 9.4%(-1039㎡) 감소한 1만32㎡에 그쳤다. 조피블락(26만7558㎡)과 넙치류(76만3210㎡) 양식장 규모도 전년보다 각각 9.1%, 5.0% 감소했다.

지난해 양식 방법에 따른 사육 수 면적은 육상수조식이 77만3202㎡로, 전남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해상가두리 양식 규모가 29.9%(40만8423㎡)로 뒤를 이었고, 땅을 파서 양식장을 만드는 축제식은 13.6%(18만6514㎡) 비중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육상수조식(61.5%→56.5%)과 해상가두리(31.4%→29.9%)가 소폭 감소했다. 반면 축제식 비중은 7.2%에서 13.6%로 2배 늘었다.

시·도별 경영체 수는 전남이 583개(36.4%)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경남 517개(32.3%), 제주 277개(17.3%), 충남 106개(6.6%) 등 순이었다.

시·도별 종사자 수는 총 5132명 중 전남이 1678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주

1630명(31.8%), 경남 1210명(23.6%), 경북 249명(4.9%), 충남 248(4.8%) 순이었다.

종사자별 경영주 수는 전남 583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2.3%, 제주 17.3%, 충남 6.6%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종사자 수는 전남 45.3%, 경남 31.6%, 제주 7.7% 순으로 나타났다. 상용종사자 수는 제주 45.0%, 전남 27.9%, 경남 17.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남 어류양식 경영체 수는 10년 전인 2010년(1030개)과 비교해 반토막(-43.4%)났고, 종사자 수는 2488명에서 1678명으로, 810명(-32.6%)이 줄었다. 종사자 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176명(-9.5%) 감소했고, 그 가운데 상용 종사자도 98명(-10.8%) 줄어든 807명에 그쳤다.

통계청 측은 "긴 장마와 기상 악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양식장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상용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8200t으로 1년 전보다 3.5%(3000t) 증가했고, 생산금액은 13.0%(1060억원) 늘어난 9237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쌀 생산비 절감 위한 벼 직파재배 확대 추진

7000ha 규모... 전년비 20% 증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남지역에서 전년보다 20% 증가한 7000ha 규모 벼 직파재배가 시행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벼 직파재배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에는 벼 직파재배 참여농협 담당직원과 농업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박광호 한국직파농업협회 회장이 직파재배 확대를 위한 농업인 기술교육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벼 직파재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벼 직파재배는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파재배는 논밭에 널 모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씨앗을 직접 논밭에 심어 가꾸는 농사법으로, 매년 전남지역에서 40억원 안팎 생산비를 절약하고 있다.

벼 직파재배를 하면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육묘양상을 할 때보다 노동력이 ha당 23%(21.8시간) 절감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쌀



농협 전남본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1년 벼 직파재배 전문기술교육 및 결의대회'에서 참가 농업인들이 쌀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다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생산비는 10%(75만000원) 절감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8년째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부녀화에 대비해 벼 직파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4년 7개 농협·53농가·83ha 규모로 시작한 벼 직파재배는 올해 65개 농협·3000농가·7000ha로 규모가 성장했다. 7년 전에 비해 84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전남본부는 벼 직파재배 대단위 특화단지 등을

추진하면서 직파재배 규모를 2018년 3931.5ha(절감액 30억원), 2019년 5188ha(39억원), 2020년 5826ha(44억원) 등으로 늘리고 있다.

박서홍 본부장은 "벼 직파재배가 농업인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농도(農道) 전남의 대표 농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해 전남 쌀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안군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결산평가 최우수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지난 25일 신안군수협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여수)이 회원조합 결산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합 선정은 이날 충남 천안시 수협연수원에서 열린 '제59기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회원조합 결산평가 결과 신안군수협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포함한 5개 조합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여수수협과 근해유망수협(여수), 나로도수협 등 5개 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완도군

일수협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민물장어양식수협(광주) 등 5개 조합은 장려상을 받았다.

중앙회 출자증대 결과 목표달성률이 높은 조합에게 주는 우수상은 신안군수협이 받고, 장려상에는 목포수협 등이 선정됐다.

목표 부여 없이 출자율이 높은 조합에 수여하는 특별상에는 고흥군수협 등 4개 조합이 뽑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역 보증 지원 점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김석기(왼쪽) 상무는 지난 26일 광주지역 보증센터를 찾아 광주를 포함한 6개 센터(순천·나주·전남·해남·제주)와 농림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현장경영을 펼쳤다. <농신보 제공>

농관원 전남지원, 전통식품 인증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 전통식품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2월 말 기준 68개 업체 97개 품목이 전통식품 인증을 받았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들 인증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 등 인증기준 적합성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증 기준은 공방심사기준(30항목)과 국산 원료사용, 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금지 등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포함된다.

농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시료를 수거해 시험연구소에서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해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방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수준으로 선정하고, 원산지 단속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식약처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인동 쌀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 문의. 010-6837-470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